

# 한국어교육을 위한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 概觀

노형남\*

## I. 서론

이 연구는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려는 대전제 하에 특히 스페인어의 언어문화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차이에 의한 언어표현의 상이점을 언어문화 범주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 교호(交互)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는 차원에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 실시에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논거로 삼는다.

연구방법은 사회언어학적인 공시적 자료를 화용론 측면에서 분석하며 그 분석 대상인 언어자료체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요국가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수준의 의사소통표현을 채택한다.

연구범위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어 규범문법에서 허용하는 통사구문으로 제한하며 화행 및 텍스트 언어학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적

---

\* 고려대학교.

격문 형식의 발화문으로 한정하고 재기발랄(才氣潑刺)한 언어유희나 특수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조어(造語)라든가 중남미식 스페인어와 스페인식 스페인어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인칭대명사 사용이라든가 동사변화형을 비롯하여 배타적인 어휘사용 및 숙어나 관용어 형성 그리고 상이한 발음체계를 세밀하게 열거하는 것은 배제한다. 그러나 은어는 반(反)문화적 수준의 연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언어의 제반(諸般) 속성은 해당 언어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 연구의 분석범주를 도출한다. 이것은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하에 스페인어의 언어문화를 미리 개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準據)를 마련하려는 초동단계 연구이다.

## II. 이론적 배경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유럽문화는 언어에 대한 상반된 상위가치와 하위가치의 평가에 의거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상위가치 또는 언어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고대철학과 기독교 전통에 의하여 표현된 것이다. 사회학 분야에서 거론되듯이 고해성사라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고백(confesión)문화는 그 이전까지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터부시되었던 성에 관련된 불륜에 대한 솔직한 고백 내지는 외설적 표현이나 욕이 풍미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sup>1)</sup> 반면에 하위가치 또는 언어

1) Michelle Foucault는 정신분석에서 인체가 마지막 경계라고 간주하고 신부(神父)와 신도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회가 민주화할수록 성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는데 이것은 도덕성과는 별개라는 의식구조를 건

에 대한 불신의 태도는 문화의 비판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소피스트의 회의주의, 명목론과 경험주의자인 흄스, 로크, 버클리, 흄 등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언어에 대한 회의주의는 경험주의 시대의 함축적 가정을 구성하며 그 자체 또한 명목론 형태를 수반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언어의 집단 구성화 내지는 은어화의 반문화적 양상을 초래한다. 이처럼 언어와 사물의 분리는 각기 하나 혹은 다른 형태로 긍정적 문화시기의 전제가 되고 사물로부터 언어의 해방은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시작을 이룬다. 인간문화의 역사는 언어에 관한 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상위 및 하위가치 사이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발성과 억양에 의한 언어적 화행(話行) 표현을 비롯하여 얼굴표정이나 시선과 같은 신체표현에 의한 비언어적 능력도 포괄적으로 활용되는데(Andersen 1994: 229-37) 문화차이에 의한 언어외적 표현 또한 언어학습자에게는 대단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Savignon 1983; Bachman 1990).

### III.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 개관 및 분석범주 설정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를 개략적으로 개관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스페인어의 속성 및 언어적 특성범주를 유형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써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전제로 하여 스페인어의 언어문화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언어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한다.

---

지하다 보니까 서구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서구인의 의식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거나 관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지도자의 성추문 사건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 1. 니태(懶怠)

스페인어권의 국민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어귀는 단연코 게으름(pereza)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일상적 인사표현은 ‘내일 보자’(Hasta mañana! <내일까지→내일 봅시다; 안녕!>)는 것인데 그 내일이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 행정업무를 보려면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겨우 가능하며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큰 일을 한 것으로 자조하는 사회분위기가 이를 잘 대변하여 준다. 그것은 대부분의 업무가 기약 없는 내일로 무한정 번번이 연장되는 것이 십상이기 때문이다.

## 2. 다혈질(多血質)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완만한 것에 비하여 이율배반적으로 다혈질인 성질은 자동차를 고속주행하면서 곡예운전에 의한 추월을 선호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에 그다지 넓지 않은 도로 폭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다. 또한 언어를 빠르게 속사포처럼 구사하기를 좋아하며 사망시 기후 탓으로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비행기 착륙시나 열차나 고속버스 도착시 운행이 미처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도 무질서하게 하차하기 위하여 통로에 즐비하게 도열하여 시끌벅적 잡담하기도 한다. 이같은 문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개관할 수 있다.

어휘의 어미부분을 생략하는 간결형 단어구사

profesor → profe / militar → mili / policía → poli <교사의 속칭(俗稱) / 군인의 속칭 / 경찰의 속칭>

전치사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명사의 부사 상당어귀 사용

el año próximo / el 21 de noviembre de 2003 <내년에 / 2003년 11월 21일에>

간결한 긍정명령의 표현

Dáselo. / Laváoslas. <그에게 그것을 주어라 / 너희들은 그것들을 씻어라>

복잡한 사고의 전환과정을 수반하는 수동태를 회피하고 피동의 기능을 가지는 재귀대명사를 사용하는 표현을 選好

Se construirá el puente pasado mañana.

(< El puente será construido pasado mañana.

< Construirán el puente pasado mañana.) <모레 그 교량은 건조될 것이다>

매우 수다스러운 속사포식의 발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관계사를 발달시켜 대단히 긴 서술식 표현을 사용

lo que / lo cual / por los cuales <앞에서 언급한 개념이나 내용 전체>

행동 자체보다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두어 성·수에 따른 어미변화를 시킴으로써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형용사의 특이한 용법을 선호

Vosotros os vais juntos, pero yo me quedo sola. / Tú te vas alegre.

<너희(남자)들은 함께 가고 나(여자)는 홀로 남는다 / 너는 즐거워서 간다>

어순을 간결화 시키려고 文頭에 부정어귀를 위치

nunca / nada / nadie / ninguno / tampoco

<결코 / 아무 것도 / 아무도 / 어느 것도 / 마찬가지로 ~하지 않다>

혼란스러운 이중부정을 불허하는 부정어귀의 중복사용

No, no tengo nada. = Nada tengo. <나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사적 어순배치의 자유로움을 도모하는 주격대명사 생략

(Yo) quiero mucho a ti. = A ti te quiero mucho. = Te quiero mucho a ti.

<(나는) 너를 매우 좋아한다>

직접목적격이 사람이나 동물일 경우 앞에 놓이는 전치사 'a'에 어순의

### 자유를 부여

Carlos quiere a María y a Ana. = A María y a Ana quiere Carlos.

<카를로스가 마리아와 아나를 좋아한다>

스페인어 철자표기에 있어서 대단히 주요한 기능을 가지는 강세표기를 생략하는 경향

rió → rio (reír 동사의 부정과거형) / hui / fio / guion

전산화 처리의 낙후성에서 거론되는 특이한 형태의 자모를 간결화 하려는 추세

España → Espana <전산화 과정의 걸림돌인 특수문자를 제거하려는 경향>

특이한 구두점을 제거하려는 경향

/ ¿ → Ø <문장 첫머리의 거꾸로 된 구두점을 제거하려는 경향>

### 3. 오수(午睡)

최근에 들어서는 타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시간차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린 관습을 하나 소개한다. 이는 전통적인 생활습관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여름에 매우 더운 날씨 때문에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오전 업무가 오후 1시경에 끝나면 귀가하여 2시쯤에 포도주를 곁들인 하루 중의 가장 주요한 식사를 마친 후, 오수(siesta <낮잠>)를 충분히 즐긴 뒤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생활습관이다. 생활양식이 동일한 경관조차 음주운전 단속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이같은 이유를 새삼스레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속을 싫어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느냐는 식의 언어생활의 일환으로 간결한 동의어를 신속하게 내어 뱉듯이 구사한다. 한편 자연히 뒤로 훨씬 늦추어지는 저녁식사 시간과의 긴 시간 폭을 활용한 취식(取食)문화는 가로변이나 테라스에서 장시간 죽치고 앉아 행

인이나 타인을 비평하면서 험담이나 소문을 전파하기 제격인 각종 바(bar)와 카페테리아 문화를 쓰레기가 어지럽게 장식된 분위기 속에 성업하게 만들며 고성방가(高聲放歌)하면서 여러 집을 전전하는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착석식의 영업장이 아닌 기립식(起立式)의 음주문화와 집시족의 춤 문화를 향유(享有)한다.

hablar mal <험담하기>/ basura <쓰레기>/ merienda, once (aguardiente) <오후 5~6시경의 간식 (콜롬비아에서는 가내제조(家內製造) 치즈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 술 이름의 글자 수가 열 한 개라는 것에서 유래)>/ ronda <영업장 내의 손님 전원에게 한 잔씩 돌리기>/ fondo blanco <단숨에 술잔을 다비우기>/ chotis <마드리드의 전형적인 춤사위>/ tuna <마드리드 대학생들의 유랑 연주단(流浪演奏團)>/ mesón <전형적인 (외양간)동굴 선술집>/ flamenco, tablao <집시족의 플라멩코 춤, 공연무대>/ Chino <동양인을 통칭하여 卑下시켜 얹잡아 보는 표현(이 표현이 혹시나 동양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커피명칭인 카푸치노에도 비유하면서 야유하기를 즐김)>

#### 4. 선민의식(選民意識)

비록 민주적인 군주국가를 표방하지만 국민성의 근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타인과 준별되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선민의식은 배타적인 집단형성을 선호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이나 구두점마저 유별나게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언어의 전산화 처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점차 소멸하고 세계적 규격화에 추종하는 추세이다.

1.234.567,89 / i / <천 단위에는 마침표를 그리고 소수점에는 쉼표를

사용 / 독립형 문장부호 생략>

특정인 끼리만의 단체형성 선호경향

clan / sociedad (de gastronomía) / Opus Dei / mafioso

<문벌(門閥) / (식도락) 상류사회 / 오푸스 · 데이(천주교파의 선민집단)  
/ 마피아다운>

지인(知人)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전기 소켓트를 빗댄 표현  
을 사용

enchufe <전기 플러그를 끼우듯이 아는 사람끼리만의 통교(通交)와  
결속을 풍자>

‘이름 + 부성(父姓) + 모성(母姓) + 전치사 de + 남편성(男便姓)’의 가부  
장적 성명표기 방법을 채택

María Pérez García de Durán

<아버지는 빼레스라는 성씨 가문(姓氏家門) 태생이고 어머니는 가르  
시아라는 집안 출신의 딸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유자로서 두란 가문(家  
門)에 시집간 부인을 지칭>

복수형에서 보듯이 남성위주의 언어표현을 사용

padres (= padre y madre) / macho, machismo <부모 / 수컷, 사나이>

과장이 심한 절대최상급 형태를 선호

amable → amabilísimo <(무지무지하게) 극도로 친절한>

투우사가 투우와 정면 대결시에 보이는 거만한 행동처럼 고개를 뒤로  
제치고 턱을 내어 밀며 시선을 하향한 채로 행하는 친한 사이끼리의 격의  
없는 인사표현

¿Qué hay? <무엇이 있느냐? → 어때? 안녕?>

tú를 사용하면서 하대(下待)해야 할 경우 오히려 반어적으로 공경어투의  
주격 대명사를 사용하여 거리감을 유발

usted (Ud.) / ustedes (Uds.) <공손한 어투가 거리감을 두는 자연스럽  
지 못한 표현으로 둔갑>

공손하지 못한 불경스런 어투



bueno <(좋아 → 천만에) 고맙다는 인사말에 당연하다는 듯한 통명스런 표현 / 전화호출에 대한 대답>

신조어(新造語)를 제멋대로 만들어 재기(才氣)를 과시하려는 성향

novela → nivola <소설을 특이한 장르로 부각시켜 작가 자신만이 독특하게 부여한 별칭(別稱)>

vagabundo → vagamundo <방랑자(세계를 뜻하는 어휘를 접속시킴으로써 유추 효과를 유발)>

인명 뒤에 해당 인물의 인품이나 위업을 대변할 수 있는 별명 붙이기를 선호하여 이와 같은 별칭만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許多)

el rey Alfonso el Sabio <현자(賢者)[(성군聖君)] 알폰소 왕>

## 5. 고해성사(告解聖事)

모두(冒頭)에 언급하였듯이 Michelle Foucault의 견해를 좇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서양사회의 종교적인 고해성사(고백)문화는 그 이전에 입에 올리는 것조차 터부시하였던 성을 지나치리만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대담성과 직결되어 노골적인 표현의 예술작품을 합리화하고 청소년 관람불가의 최상등급 매김을 초래하여 그러한 분야의 배우가 오히려 유명인사로 각광받는 세태를 형성한다. 남·여성을 불문하고 생식기 명칭에 관련된 욕지거리 식의 예의 없는 조악한 표현이 거침없이 구사되고 공식석상에서의 발설을 도리어 멋들어진 용기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언어현실이다. 이것은 색정적 표현의 발달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심히 교양적이지 못한 어휘이므로 직접적인 언급은 이 연구에서 생략한다. 한편 예의를 주요시하는 전통적인 동양 풍토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힐책(詰責)하는 어투 또한 광의의 범주로 분류한다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coño / cojones / cojonudo / honkonuda < honkong 여인을 卑下 (동양의 것  
 이라면 중국과 관련시켜 일괄적으로 폄훼(貶毀)하기 좋아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비근한 예)> / casa verde <녹색(綠色) 집→ 홍등가(紅燈街)> /  
 puta (<prostituta>), hijo de puta, puta madre / superguapa <超美女> / tontería  
 <바보 같은 멍청한 짓> / Cállate! <입 닥쳐! (여물통 닫어!)>

## 6. 투우(鬪牛)

한동안 최대의 환대를 받으며 사육된 건장한 투우용 소가 투우경기 당일 투우장에서 인간에게 느끼는 강렬한 배신감은 소를 광분하게 만들고 소의 등에 계속 잔인하게 자행되는 각종 가해는 실로 엄청난 분노의 도가니 속에서 투우가 자기의 체력한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처럼 잔학무도(殘虐無道)한 살해 과정에서 투우사가 묘기를 보이며 투우를 시달리게 할 때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관중의 우렁찬 야유와 환호를 수반하는 장시간의 유희가 전개되는데 마침내 소가 혀를 빼어 물고 전의(戰意)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투우사가 모자를 벗어 관중의 환호에 답하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한 후, 투우사의 모자를 투우장 모래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소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서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그리고 투우사가 칼끝 부분이 약간 휘어진 도살용의 긴 칼을 들고 그 칼을 거머쥔 손의 방향으로 몸을 뒤틀되 시선은 투우를 향한 채 거의 수평으로 몸을 날려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단계 직전에 전체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숨을 죽이는 순간이 도래하면 이 찰나(刹那)를 일컬어 이른바 ‘진실의 시간(hora de verdad)’이라고 미화한다. 투우를 도살하기 직전, 투우사가 소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합을 넣으면서 거만한 자세로 고개를 치켜올리는 행위가 바로 상술한 바 있는 격의 없는 인사태도(¿Qué hay?)인데 이것이 바로 비록 의미상으로는 인사

내용이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예의바른 한국인 사회에서는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시선도 아래를 향하는 태도를 당연히 하므로 이는 한국인이 참으로 수용하기 힘든 문화차이의 일례이다.

## 7. 걱정(激情)

투우경기에서 투우사 아니면 소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처럼 사랑에 죽음을 전제로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격렬한 열정은 스페인어권의 독특한 격정적인 사랑문화를 창출하는데 이처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축소사(縮小辭)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것을 극도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añito / hombrecito / ahorita <몇 살밖에 / 꼬마신사 / 지금 막>

증대사(增大辭) 또는 경멸사(輕蔑辭)를 가지고 과장하여 확대시키기도 한다.

añazo / hombretón / domilón <몇 살씩이나 / 사내대장부 / 잠꾸러기>

또한 화자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접속법이 시제나 용법에서 다양하면서도 세분화하여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명령어 표현이라든가 유감을 표명하는 외교문서 혹은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여한 바가 자못 크다.

Ojalá estuviera en veinte años! / No os las lavéis.

<내가 이십대라면 좋으련만! (실현 불가능한 소원) / 너희들은 그것들을 씻지 마라>

## 8. 우유부단(優柔不斷)

반도국의 속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서러우리만치 celtíbero종족의 거점에 vandal, alani, suevi, visigodo, árabe, sirio, berberisco종족 등 외부의 적이 수 차례 침공하였으며 비잔틴 교역상을 비롯하여 로마인, 그리이스인, 유태인, 페니키아인, 페르시아인 등과 상거래를 하였는데 좋게 말하자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라고 호평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는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의식이 마비된 채, 적과 장기간 동침에 따른 혼혈에 의한 어휘잔존(語彙殘存) 현상이 허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랍어의 경우를 들어 민족의식 고취차원에서 실지회복(失地回復 reconquista)이 감행되었다고 미화시키기는 하지만 기원 후 711년부터 149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 침입자와 공생한 연유로 인하여 스페인어 어휘에 파생어 형태를 포함하여 통산해 4천 개 이상의 영향을 끼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전혀 서로 상관성이 없는 뜻들로 이루어져 다양하게 해석되는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zoco)가 나막신, 왼손잡이, 왼쪽, 모로코 시장, 광장, 길모퉁이, 주석(柱石), 수은(水銀) 등의 뜻을 지니거나 수입인지, 증표, 초인종, 음색(音色), 위업, 공적, 소인(消印), 문장(紋章)에 새긴 명기(銘記), 우표 등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는 것(timbre)이 있는가 하면 마개, 썰기, 당구의 큐, 책, 간식, 한 입 먹기, 한 잔 들이킴, 혼란스러운 뒤범벅, 욕지거리, 근심거리, 구두 뒷굽, 진퇴양난(進退兩難), 땅딸보, 꼬마 등의 사용을 예(taco)로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 뒤집힘, 곡절(曲折), 한 번 말기, 귀환, 거스름 돈, 반복, 이면(裏面), 소매 깃, 변화, 경작, 손질, 구타, 둥근 천장 등의 뜻이 혼재된 경우(vuelta)마저도 상당수 존재한다.

## IV. 한국인이 지닌 문화의식과의 차이점

상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차이를 분석한 틀에 입각하여 한국인이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제로 하여 스페인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화차이 내지는 문화충격을 조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편의상 한국인이 스페인어학습 최우선 단계에서 뇌리에 즉각 떠올리는 거의 직역에 가까운 전반적 뜻풀이 내용을 각 괄호 안에 병기한다.

### 1. 인사언어

(1) ¿Qué hay? < [무엇이 있느냐?] → 어때? 괜찮아? >

이것은 격의 없는 사이에 사용되는 친근한 인사언어로서 프랑스어의 'Ça va?'처럼 '어때?' '괜찮아?'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인사말을 처음 듣는 한국인은 비록 인사내용이 한국어와 유사하더라도 앞 장 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비례적(非禮的)인 인사자세에 어리둥절해 하며 호의적인 답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반갑게 나타내지 못하고 주저한다. 더군다나 이때 고개를 도리어 뒤로 제치다 보니 자연히 시선은 상대를 내려다 봄으로써 話行상황에 따라서는 불쾌감마저 노골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마저 발생한다. 한편 인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볼을 맞대고 상대방의 귓볼 가까이에서 입맞춤 소리를 가볍게 내는 문화는 보수적인 한국인 남성이 스페인어권 국가의 여성을 만났을 때 특히 어색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페인어 사용자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한국인 남자를 오히려 교육을 받지 못해 예의가 없는 사람(maleducado)이라고까지 혹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

업 상대자이거나 교분이 두터운 사나이끼리의 인사과정에서 상대를 얼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것은 서로의 의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능숙하게 잘하며 보기에도 잘 어울린다.

(2) Vosotros saludáis a vuestros amigos.

Vosotros los / les saludáis. <너희들은 [그들을(?) →] 그들에게 인사한다>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간접목적어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들에게’라는 보어성분이 스페인어에서는 직접목적보어로 쓰이므로 혼란스러워 한다. 더군다나 이 경우 보어가 사람인 남성에게 혼용 가능한 직접목적보어 형태 les는 사람인 보어 남·여성에 공히 사용되는 간접목적보어 형태와 동일하므로 잘못된 인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향마저도 있다.

## 2. 통사 구조

혹자(或者)는 통사구조 분석이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의 근본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두(冒頭)에서 제시하였듯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성,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론적 제반 속성은 해당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여기서는 이를 연구가설로 설정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잡고 그 과정에서 분석범주를 도출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므로 이와 같은 논거를 갖춘 일련의 논지전개는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시 문화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타개를 위한 준거(準據)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논급한다.

- (3) El complemento directo activo, si lo hay, se convierte en sujeto paciente.

<능동태 직접보어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수혜 주체로 전환된다>

스페인어 동사 hay는 사물의 존재사실 여부만 표현하는 비인칭형 용법  
이므로 흔히 존재하는 사물을 주어로 판단하여 직접목적보어의 용례에서  
는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표현은 다르므로 당황한다.

- (4) *Me gustan las flores.* < [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 나는 꽃  
들을 좋아한다>

스페인어의 간접목적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이한 사고의 전환과정이 필  
요한 용법인데 이와 유사한 용례를 가지는 동사가 매우 많으므로 사고의  
민활한 전환이 수월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을 응용하면 다음  
의 예 (5)와 같은 표현의 해석이 충분히 납득가능한데도 실제로 한국인이 스페인어로 표현하려면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과정이 없는 다른 평이한 동사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Te gusto?* <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니?] → 너는 나를 좋아하  
니? (자기 나 좋아?)>

*Me gustas.* < [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 자기 좋아)>

연인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 사고의 전환과정이 필요한 복  
잡하면서도 매우 간결한 표현인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로는 학습초기에 힘  
들어한다.

- (6) *A Fernando se le caen los pantalones.* <페르난도의 바지가 (저절로  
본인도 모르게) 흘러내린다>

의복착용자의 고의적인 탈의행위가 아니라 혁대나 벨트의 손상 또는 지탱하는 부속의 느슨함으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내리는 낭패로서 관중에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을 묘사하는 스페인어의 특이한 중간문 형식의 표현이다. 발화문의 주어가 아니면서 여격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주체의 전혀 예기치 못한 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의사소통 참여자가 표현하는 발화이다.

(7) *A la sirvienta se le cayeron varias tazas.* <하녀가 컵 몇 개를 떨어뜨렸다>

컵을 자유낙하로 떨어뜨려 보거나 심경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해소나 화풀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로 빚어진 사건임을 표현한다.

(8) *A Uds. se les enfría la sopa.* <당신들의 국이 식는다>

일부러 냉각실험을 하려고 하거나 장시간 용기의 방치를 유도함으로써 국물의 온도를 하강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요리된 상태에서 서 그대로 놓아두거나 식기에 배식한 후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절로 국이 식어버리는 상태를 뜻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는 국을 주어로 놓고 주격보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다운 표현을 위한 발상 자체가 어려운 구문이다.

(9) *Son iguales de tamaño y de precio.* <그것들은 크기와 가격이 같다>

한국인은 전치사 *de*의 용법에 의아해 한다. 동일한 의미의 스페인어 문장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크기와 가격을 주어로 간주하여 주어로 놓고 작문하려고 한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일별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주어의 명사가 제시되어 주어 위치에 놓이



게 되면 비로소 수긍한다.

(10) *Hace mucho calor.* < [많은 더움을 만든다] → 날씨가 매우 덥다>

직설법 현재 단수 3인칭이되 비인칭 형태의 동사변화와 함께 명사를 수반시켜 날씨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은 ‘비가 오다’라는 동사 *llueve*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hace lluvia*라는 기발한 착상을 한다. 한편 스페인어의 *hacer noche*는 ‘밤을 만들다’가 아니라 ‘밤을 보내고 지새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1) *gran hombre* <위대한 남자> / *hombre grande* <(몸집이) 큰 남자>

스페인어 형용사의 일반적인 정위치는 수식을 받는 명사의 바로 뒤인데 이것이 위치 변경을 하여 수식 받는 단어의 앞에 놓이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가미되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 건축하는 새집인 경우와 기존의 집이지만 새로 이사가는 집이 다르게 표현되며 생수나 증류수도 그 표현이 형용사의 위치로 결정된다.

(12) *ser* / *estar* 동사

영어의 *to be* 동사에 해당하는 표현이 스페인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ser* 동사는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estar* 동사는 일시적인 상태나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차이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용사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할 준비가 된 경우(*estar listo*)와 영악스러운 인품을 표현하는 경우(*ser listo*) 그리고 지겨운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는 경우(*ser cansado*)와 피곤에 지친 사람에 대한 묘사(*estar cansado*)가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경험을 해서 아는(*conocer*)’와 ‘지식으로 아는(*saber*)’의 용례가 차이를 보인다.

## (13) 전치사 de

스페인어에 빈번한 전치사 de의 용법에 익숙해진 학습자는 영어의 of와 동일시하여 영어구사 때에 대단히 자주 전치사 of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의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전치사 de의 사용이 의외로 스페인어에서는 다른 전치사로 쓰이는 것에 당황한다. 예를 들면 ‘칼라 텔레비전’은 *televisor en color*이며 ‘도난 보험’은 *seguro contra robos*이다. 한편 ‘쇼핑가다’는 *ir de compras*라고 표현하며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도 *ir de vacaciones*로 나타나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한 학습자는 당혹한다.

## (14) tener sueño &lt; [꿈을 가지다] → 졸립다&gt;

스페인어에서 관사의 사용은 의미의 차이를 초래한다. 한국인은 이러한 세부적 변화에 둔감하고 관대하여 적당히 표현하여 얼버무리려고 한다. 부정관사가 삽입된 *tener un sueño*는 미래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como*라는 전치사도 다음에 정관사가 있으면 ‘~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정관사가 없으면 ‘~(으)로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언어로 그 사용이 구별된다.

## 3. 생활상(生活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와 한국어 상용구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실생활 문화차이에 기인한 어휘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cuervo* <까마귀>

한국인은 잘 망각하는 사람을 핀잔줄 때 까마귀고기를 먹었느냐는 표현을 쓰며 불길한 죽음의 예감까지 받는 날짐승으로 까마귀를 터부시하

는 데 비하여 스페인에서는 도리어 길조(吉鳥)로 여기는 것이 다르다. 한국에서 길조로 여기는 까치(urraca)가 도리어 흉조로 통하는 것이라든가 호랑이(tigre)나 용(龍 dragón)을 상서로운 동물로 보는 한국의 관습과 판이하게 흉물로 간주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

(16) Cuando Francia *estornuda* España dice Jesús!

<프랑스가 기침(재채기)을 하면 스페인은 ‘하느님!’하면서 건강을 기원한다>

이 표현은 18세기 스페인이 프랑스문화 영향권 하에 있었을 때의 정세를 시니컬하게 풍자한 비평가의 지적사항인데 이처럼 스페인 문화에서 기침은 결례가 되며 한국에서 금기시하는 식탁에서의 코푸는(*sonarse las narices*) 행위는 오히려 음악성까지 곁들여 요란하게 처리하여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아울러서 윗사람과의 식탁 대면에서 음주를 결례로 보고 맞담배질은 전혀 개의하지 않는 것도 상이한 현상이다.

(17) Bueno <좋다 / 좋아>

전화를 받을 때 멕시코 등지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한때 세계적인 대지진이 났을 때 통신두절에서 야기된 불행한 사태를 절실하게 경험하였던 터라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마치 군대 통신병끼리의 통화내용에 등장하는 ‘수신감도가 좋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18) éxito <성공> / suceso <사건>

영어를 일찍이 교육받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굳어진 영어의 잔재는 스페인어 어휘의 의미파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영어의 ‘비상구’를 뜻하는 exit나 ‘성공’을 뜻하는 success를 상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단어

를 사용하는 과오를 한국인 학습자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19) Chelo <Consuelo라는 이름의 애칭(愛稱)형태>

스페인어에서는 인명의 애칭형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첼로’라는 약기명칭으로 이해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외에도 Dolores(고통, 고난)라는 이름은 예수의 고행(苦行)을 성스럽게 기리는 것인데 이 이름은 엉뚱한 변화를 일으켜 Lola 또는 Lolita라는 애칭형을 가지며 Francisco는 Paco라든가 Paquito라는 애칭형태를 가진다.

(20) camión <트럭 → 버스>

스페인에서는 트럭이지만 멕시코 등지에서는 버스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다. 스페인의 autobús가 아르헨티나에서는 bañera, 파나마에서는 chiva, 칠레에서는 góndola라든가 micro 그리고 쿠바나 라스팔마스에서 guagua 등으로 불리지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른 표현이 중남미 23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 방면에서 사용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중남미로 식민지를 개척하러 갈 때 오랜 기간 항해에서 익힌 단어를 대륙에 상륙해서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embarcase는 기차, 전차, 자동차, 버스,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 사용되며 desembarcarse는 내릴 때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embarcadero가 선박을 위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차의 플랫폼(andén)이 되기도 한다. 선단(船團)의 의미를 가지는 flota는 콜롬비아에서 버스조합을 지칭하며 fletar는 차량이나 마차를 빌리는 뜻으로 쓰인다. 선박의 키를 뜻하는 timón은 자동차의 운전대와 비행기의 승강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간의 어휘사용 차이가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 밖이므로 제한한다.

(21) *Hace tres años que habitamos esta casa.* <우리가 이 집에서 산지 3년 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직접목적보어로 사용하면서 접속사 *que*와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다’라든가 ‘~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 전부터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 한국인은 이것을 전치사로 속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동사는 당연히 시제 변화를 하여 화자가 언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하는 시간의 폭을 나타낸다.

Desde *hace poco*, está lloviendo.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Ayer *hizo un mes que* llegamos. <우리가 온지 어제로 한 달이 되었다>

Mañana *hará dos años*. <내일이면 2년이 된다>

#### 4. 철자 및 강세부호

(22) *España* → *Espana*

최근 컴퓨터 활용 측면에서 낙후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수형 문자 ñ를 없애고 음가(音價)가 유지되는 다른 표기법을 개발하려는 주저현상으로 전환되는 예에서 스페인어학습자는 당황한다.

(23) *rió* → *rio* (*reír*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형)

스페인어학습 초기에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인식하였던 강세부호가 와해되는 현상에 당혹한다. 최근에 스페인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 북미, 필리핀 등지의 22개 학회의 학자들이 모여 스페인어의 강세 철자법을 개정하였는데 약모음의 강모음화(hiato)와 이중모음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난 발음조합에 대하여 항상 이중모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림으로

써 *huir*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형을 *hui*로, *reír*의 직설법 과거형도 *rió*로, *fiar* 동사의 것도 *fió*, 그 외에도 *guión*이었던 것을 *guion*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강세형도 계속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2001년에 발행된 스페인 한림원사전에 지난 1992년도 판에 수록되었던 어휘 중에서 약 3만 가지 정도가 수정되었다.

(24)  $i / í \rightarrow \emptyset$

감탄문과 의문문의 시작을 표식하는 거꾸로 된 부호에 문화차이를 절감한다. 그러나 컴퓨터화 과정에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점차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25) 1.234,56

‘일천 이백 삼십 사 점 오 른’을 표기하는 방법이 천 단위에 마침표를 찍고 소수점 표기에서 쉼표를 사용하는 아라비아숫자 표기에 문화차이를 절감한다.

(26) 234

숫자를 읽을 때 백 단위의 수와 십 단위의 수 사이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넣기에 익숙한 외국어 습득자에게는 ‘이백(성·수에 따른 변화) 삼십 그리고 사’라고 읽으면서 수반되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키는 변화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27) *paraguas* < [물을 멈추다] → 우산>

스페인어에서 복합명사는 동사의 직설법 단수 3인칭 변화형에 명사의 단수나 복수 형태를 부가시켜 만든다. 유사한 계열의 명사로는 *parabrisas* (바람을 막기 → 자동차의 앞 유리)/*paracaídas*(추락을 막기 → 낙하

산)/portamonedas(돈을 휴대하기 → 지갑) 등이 있다.

## 5. 반(反)문화적 요소

(28) coño

구체적인 뜻풀이는 학술 및 미풍양속 차원에서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밝히자면 생식기 명칭에 따른 욕지거리에 해당하며 특정부류 사람끼리의 거친 표현의 대화에 오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을 비롯하여 이러한 상소리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동료의식마저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여 대단히 자연스럽고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국인은 이러한 부류의 언어표현에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이상 논급한 바와 같은 일련의 문화차이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의사소통문화에 따라 말이나 행동을 함은 물론이려니와 상대방의 언어나 행동도 자신의 의사소통문화에 비추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과 비견된다(Gumperz et al. 1979).

## 6. 은어(隱語)

이른바 반(反)문화라고 하는 관념(사고방식)의 다양한 표현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관련지어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반문화적 경향은 젊은이 집단에 의한 표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14세에서 22세 사이 연령층의 학생과 도시인의 은어 속에서 스페인어 문화와 사고방식의 관계를 개관한다.

## 1) 특이한 접미사

청년층의 은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접미사는 *-ata*인데(Casado 1985: 71-9), *bocata* (샌드위치), *bugata* (*buga* ‘자동차’, 영어의 *buggy*), *camarata* (종업원), *cubata* (꾸바리브레; 코카콜라와 럼주로 만든 칵테일의 일종), *drogata* (약물중독자), *fumata* (흡연가, 일반적으로 마약 복용자), *jupata* (*jupa* ‘재킷, 옷옷’), *privata* (*priva* ‘마실 것’), *sociata* (사회주의자), *tocata* (촉음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록 드문 생성력과 사용빈도를 갖지만 접미사 *-ata*를 접미사 *-ota*와 *-eta*로 기능적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drogota* (약물중독자), *grifota* (마리화나 골초), *pasmorata* (*pasma* ‘경찰’), *pasota* (시종일관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사람), *pinchota* (마약물질을 주입하기 위해 스스로 주사를 놓는 약물중독자) 등과 같은 파생어에 나타난다. 접미사 *-eta*는 *camareta* (종업원), *coloqueta* (격분을 스스로 진정하다), *chuleta* (시건방진 하층민/아가씨), *fumeta* (약물 복용자, 중독자), *trompeta* (만취한 나팔수), *vagueta* (부랑자)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접미사 *-ata*는 범죄에 관한 은어에 속하는데 고어와 관련된 *-ata*에서 가령 *bocata* (배고픔), *consata* (친구), *volata* (창문이나 지붕을 통해 도둑질하는 도둑, *volar* [몸을날리다]에서 유래). 스페인 불량배의 실제언어에 속해있는 것으로서 *consata* ‘동료’, *culata* ‘바지 뒷주머니’, *polcata* ‘싸움질, 난장판’, *solata* ‘단독범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ota* 역시 불량배의 실제언어에서 발견된다. 그 예로는 *pasmota* (경찰의 조사; *pasma* ‘경찰’에서 유래), *picota* (스스로 주입하는 마약 중독자; *picarse* ‘마약을 스스로 주사하다’에서 유래), *pinchota* ‘면도칼 집’, *sebotata* ‘범행’ 등이 있으며 접사 *-eta* 형태도 젊은이의 은어에서 *-ete*라는 여성형처럼 사용된다(*calvete* [대머리], *historieta* [逸話]). 한편 *-ata*와 *-ota*처럼 *-eta*를 갖고 형성되는 어휘도



실제은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clameta* '계류 중인 司法的 異議', *coloqueta* '정치적 구류', *consumeta* '약탈품, 절도행위에 의해 획득된 물품', *gambeta* '걸옷', *langueta* (잠정적 자유; *largarse* '가버리다'), *mandeta* '음식', *pureta* '노파, 늙은이', *sobeta* (잠자고 있는; 집시족의 언어인 *sobelar* '잠자다'에서 유래, *vagueta* '걸인, 부랑자' 등의 예가 있다.

## 2) 어휘 단축

오늘날 스페인 젊은이의 언어사용에서 특이할만하게 존재하는 어휘현상은 단어를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uto*, *bici*, *cine*, *foto*, *mili*, *moto*, *tele*, *zoo* 등과 같이 2음절이며 강세의 轉位 외에 단축형에서 음성적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단축은 *ampli* (중폭기), *corto* (단편영화), *crono* (정밀시계, 크로노미터), *depre* (침울), *guri* (군인), *mani* (표출), *neura* (신경쇠약환자), *porno* (포르노그래피), *progre* (진보주의자) 등이 있다. 전통적인 단축형 이외에도 현재의 젊은이 언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는 *anarco* '무정부주의자', *diputa* '의원단', *ecolo* '환경보호주의자', *estupa* '마약 특별반', *legia* '군사, 병사', *machaca* '줄병', *manifa* '표명', *masoca* '메조키스트', *paraca* '낙하산 병사', *proleta* '노동자 계급' 등과 같은 단어의 분할을 거론할 수 있다. 더군다나 3음절 단축형의 어말(語末)모음 변이는 -*ata*와 관련이 있으며 *coaga* '정치집단인 갈리시아 연합회원', *gasofa* '가솔린', *munipa* '시경', *sudaca* '남미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범죄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면 *forasta* (외국인), *camara* (종업원), *escapara* (진열창), *garabo* (어떤 것을 걸거나 고정시키는 옷걸이의 일종으로서의 갈고리), *foraja* (탈주범), *confite* (첩자), *espeta* (검열관), *estupas* (마약단속 검열관), *matraca* (자전거 번호 대장), *perico* (신문) 등이 있다. 이상 거론한 바와 같이 학교, 대학, 친구무리, 군대에서의 농담, 사회비판, 문화거부

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어휘는 여러 가지 주제영역의 기능 내에서 서로 다른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분포는 젊은이 집단 내에서 높거나 낮게 발견되는 가치의 의미로부터 연유한다.

### 3) 어휘영역

동사 *comer*와 *jamar*는 정상적인 지배관계에서 ‘설득하다(*persuadir, convencer*)’라는 뜻을 가진다. 그리고 동사 *chapar*나 *empollar*는 ‘공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currar*와 *currelar*는 보다 확대된 의미를 가짐으로써 ‘일하다’라는 영역으로 확장되며 *currante, currelante, curro, currito, curre* 등과 같은 파생어가 수반된다. 한편, 인간의 비인간적 행동을 동물의 행위처럼 묘사하는 어휘로는 먹는 행위와 음식물 그 자체를 기술하기 위해 *chascar* [혀를 차다, 들이마시다], *jalar* [술에 취하다], *jamar* [먹다], *manducar* [먹다], *papear* [먹다], *tragar* [포식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며 그 각각의 명사는 *jamancia, manduca, manduque, papeo*이다. 마시는 행위와 음료는 *pribar, privar, trincar, priva, prive, privada*라고 하며 알콜음료를 과음한 만취상태는 *cogorza, melopea, mona*로 표현한다. 그리고 *planchar la oreja*나 *sobar*(整骨하다)는 ‘자다’의 뜻을 가지며 파생어인 *sobeta*는 ‘잠’을 의미한다. 동사 *junar*는 ‘ver [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죽다’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설적(迂說的) 표현이 사용되는데 한 국인은 ‘밥숟가락을 놓게 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반하여 스페인에서는 ‘담배 피우기를 그만두다(*dejar de fumar*)’로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다.

젊은이 은어의 또 다른 일면은 돈과 관련된다. 지폐는 은어로 *papeles*나 *papiros*라고 불리워진다. 비록 현재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화폐단위이기도 하지만 종전의 지폐 5천 페세파는 *fantasma, morado, sábana*라고 명명되기도 하고 1천 페세파는 *lechuga, talego*라고 하며 1백 페세파는 *gamba, libra*

라고 하였다. 1백 빼세따 짜리 동전은 *chocolatina*이며 5 빼세따 짜리 동전은 *pavo*이다. 그리고 빼세따 그 자체는 *chirla, leandra, pela, púa, rubia* 등으로 불리었다. 돈에 대한 이러한 은어표현의 상당수는 언어 안에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 1백만 빼세따를 의미하기 위해 kilo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는 무게단위에서 1백 빼세따 짜리 지폐의 그만한 양에서 유래하였다. 반면에 오늘날 유럽통화권 통합 이후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 중에서 가장 고액단위 지폐인 5백 유로는 ‘빈 라덴’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911 테러 사건 이후의 세태를 잘 반영하면서 미서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스페인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반미감정을 은근히 즐기려는 것과도 다맥상통한다. 이처럼 스페인 은어의 개념적 경계는 따분해서 즐기거나 창피한 성적인 관계, 주변사람,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단순한 평가 등 은어형성 초기의 정신적 과정을 암시한다.

#### 4) 은어의 원천

은어는 불량배의 언어에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baranda* ‘대장’, *basca* ‘사람들, (악당의) 패거리’, *bafia* ‘경찰’, *burra* ‘버스’, *calcos* ‘구두’, *camello* ‘마약거래 상인’, *carroza* ‘늑은이, 성인’, *currar* ‘일하다, 특정범죄행위를 실행하다’, *chorchi* ‘군인, 직업군인’, *chorizo*와 *choro* ‘도둑’, *chupa* ‘재킷’, *fiambre* ‘시체’, *guindar* ‘사취하다’, *guita* ‘돈’, *hierba* ‘마약’, *jalar* ‘먹다’, *jay* ‘여자’, *junar* ‘보다’, *loro* ‘라디오’, *machaca* ‘골치 아프고 보상이 적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 *madera* ‘경찰’, *madero* ‘경찰대리인’, *mangar* ‘훔치다’, *manguta* ‘불량배’, *mogollón* ‘어떤 것의 다량’, *molar* ‘좋아하다’, *mollate* ‘포도주’, *mono* ‘시경의 직원’, *pirarse* ‘진열되다’, *pureta* ‘노인’, *romanos* ‘反교란 국가경찰청’, *rugir* ‘어떤 것이나 장소가 구린 나쁜 냄새를 풍기다’, *saco* ‘감옥’, *talego* ‘감옥’, *tronco* ‘공범, 동료’, *trullo* ‘감옥’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은어 중 많은 것이 집시족의 언어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이나 의미 변환을 거쳐 차용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청년층이 주요한 핵심용어를 표현하거나 뚜렷하게 열등한 문화영역의 고유한 어휘파생 방법의 일부로서 채택하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차용은 일반적으로 은어사용자의 문화적 우위를 인식하는 언어학적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열등한 문화주체의 언어양식이 기능적으로 유용하거나 특별히 표현되어 나타난다면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하는 사례이다(Coseriu). 구체적으로 불량배 언어에서 어떤 유용성과 표현이 발견되는가 하는 의문제기에 관해서는 아마도 다소 유효한 언어공동체의 일반언어에 의해 표상되는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한 거부수단으로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분배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한 가지 형태는 바로 몇 가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의 차용이다. 어떤 특정한 언어전통에 속하는 단어인 은어를 차용하는 것은 만약 담화의 의미가 역설적이거나 풍자적 혹은 익살스럽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언어의 그러한 양태의 관습적인 사용자와의 문화 및 정서적 동일시를 가정하는 결속행동을 나타낸다. 특정한 문화에 반대되는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나 이미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인상을 주는 것은 고유한 언어전통과 분리되는 것이며 동시에 발화자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공동체의 동시대 화자들과도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언어의 사용에서 유래된 의식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모두(冒頭)에 연구가설로 제시하였듯이 특정한 언어공동체의 언어가 그 문화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는 은어 *currelar*와 표준어 *trabajar*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불량배에게 있어서 *currelar*라는 것은 ‘특정한 특수범죄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여 부과된 일을 억지로 수행하거나 이해의 법칙 하에 일상적 방법의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명사형인 *currelo*는 ‘비인간적이고 자유의지가 아닌 창조

적이지 못한 개성의 실현이 불가능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성질이 없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언어현상이 일반표준어에 영향을 끼쳐 범죄용어인 은어의 일부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trabajar*는 '특정한 특수 범죄행위에 종사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대단히 빈번하게 인간과 인간에 관한 것을 동물적인 것과 식물적인 것 혹은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질조차와도 동등한 가치를 매기는 데서 발견되는 가치하락의 일례로서는 인간의 신체부분인 머리에 관한 *azotea, bolo, calabaza, coco, melón, olla, sandia, tarro, tiesto* 등과 같은 은어적 지시어가 거론될 수 있다. 의미적 가치하락과 동일선상에서 *buzón* '입', *jeta* '얼굴', *morro* '얼굴', *mover el esqueleto* '춤추다', *sudar* '운동하다', *los viejos* '부모', *zarpa* '손' 등의 어휘 표현도 존재한다.

## 5) 언어와 윤리

어휘의 의미는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관습, 윤리, 정신 안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언어는 반문화적 관념을 일컬을 때 비롯되는 표현의 도구라기보다는 차라리 대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스페인어권 젊은이의 은어사용에는 정치인과 집정자에 의해 실행된 추상적이면서 고도화된 기술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거부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높은 가격으로 인상하다'라는 말 대신에 *reajuste de tarifas*[가격 재조정]이라고 하며 '퇴출' 대신에 *flexibilización de plantilla*[직원배치의 유동화]라고 표현하고 '임신중절'이라는 말 대신에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라고 표현하거나 *extracción menstrual*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륜의 관계'를 *matrimonio de hecho*[행위의 결혼]이라고 하거나 '매춘부'라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profesional del amor*[연애전문가]라고 하는 우회적 표현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표현은 문화와 깊이 단절된 자아를 구

성하며 그러한 단절은 인간적인 삶의 필수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오늘날 의사소통이 구어의 다양함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때 갖게 되는 의미와 가치의 불일치에 의해 표출되고 명분뿐인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공통된 세상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V. 결론

언어의 제반 속성은 해당 언어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논거에 해당하는 분석범주를 도출하였다.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을 대전제로 하면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문화차이를 개관하였다. 언어문화차이에 기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서 경험하게 될 문화차이에 의한 언어표현의 상이점을 설명하면서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스페인어권의 문화적 특성은 나태, 다혈질, 오수, 선민의식, 고백, 투우, 걱정, 우유부단으로 요약하였다.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서 경험하게 될 언어표현의 상이점은 상술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인사언어, 통사구조, 생활상, 철자 및 강세부호, 반문화적 요소, 은어 부문에서의 문화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적 교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문화에 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는 차원에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 참고 문헌

- Andersen, P.(1994) Explaining Intercultural Differences in Nonverb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Wadsworth Inc.
- Bachman, L.(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ardez, Enrique(1987) *Lingüística del texto*, Madrid: Arco/Libros S.A.
- Casado Velarde, Manuel(1985) *Tendencias en el léxico español actual*, Madrid: Coloquio.
- Coseriu, Eugenio(1982) *Teoría del lenguaje y lingüística general*. Madrid: Gredos.
- Gumperz, J., T. Rupp & C. Roberts(1979) *Crosstalk: A Study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London: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Language Training in association with the BBC.
- Hymes, Dell(ed.)(1966)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 Samovar, L.A. & Porter, R.E.(1994)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Wadsworth.
- Savignon, S.(1983)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Reading, Mass: Addison-Wesley.
- Siegmán, A.W. & Feldstein, S.(Eds.)(1985) *Multichannel Integrations of Nonverbal Behavio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Van Damme, E.(1987) *Stability and Perfection of Nash Equilibria*. Berlin: Springer Verlag.